

황대표가 말하는 목장형 유가공 이것만은 기억하자.

1. 생산과 가공을 분리하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할 경우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어야만 고품질의 치즈 및 유가공품을 만들 수 있다.

2. 위생과 청결을 최우선시 하라

목장내에서 유가공품을 만들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위생수준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3. 부채비율을 최소화하라

유가공품 또한 백색시유와 마찬가지로 계절적 영향을 받는다. 여름철 특히나 여름방학 시기에는 판매량이 줄어들고 겨울에는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연평균 생산량 조절을 하지 못할 경우 자금 경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 후계농을 육성하라

우리나라의 대부분 목장이 그렇듯이 가족 경영을 주로 하고 있어 한사람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목장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농이 있다면 후계농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한다. 우리 목장도 큰 아들 내외가 함께 생산과 가공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고 있다.

5. 사유서는 훈장이다

사유서가 쌓여갈수록 경험치가 올라간다. 두려워말고 도전하는 것만이 최선이다.